

# 濟州島 方言의 疑問法 語尾에 대한 一考察

정 승 철\*

## I. 머리말

方言學은 그 方言 자체의 記述뿐 아니라 國語史에의 一助, 말하자면 國語史의 觀點에서의 方言比較도 행할 수 있다. 그러기에 어느 한 方言의 記述은 그 方言의 共時的 記述은 물론 그 方言의 特性을 文獻語와 比較해서 記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이 글에서는 현대 中央語와 상당한 차이를 지니는 濟州島 方言, 특히 그것의 疑問法 體系에 관심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려 한다.

叙法이란 전통적으로 文章의 內容에 대한 話者의 심리적 태도가 일정 한 형태 變化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표시되는 문법법주를 가리킨다.<sup>1)</sup> 疑問法은 발화행위상 어떤 사태에 대하여 話者가 聽者에게 응답을 要求하는 서법의 하나인데, 非言語的 行위를 要求할 수 있는 명령법과는 달리 疑問法은 言語的 응답을 要求한다.<sup>2)</sup> 따라서 疑問法은 그 언어적 응답과 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다만 여기서는 疑問法 語尾의 特性에 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說明法으로서의 응답문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서술해 나갈 것이다.

국어 의문법 표시의 형태상의 수단은 抑揚, 疑問詞, 疑問語尾<sup>3)</sup> 이나

\* 국어국문학과 4년

1) 高永根(1983: 164).

2) 李賢熙(1982: 1).

本論의 주대상은 疑問語尾이며 억양과 의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리고 疑問法이 終結語尾에 나타나는 疑問表示의 叙述이라는 점에서 筆者는 ‘어떤 叙法의 語尾란 다른 叙法에는 나타날 수 없는 그 叙法 特有의 것이어야 한다’는 태도<sup>4)</sup>를 취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疑問法 語尾란 說明法이나 命令法 等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疑問法 特有의 語尾라고 規定한다.

## Ⅱ. 本 論

여기서 언급하는 疑問法은 補文에서의 의문법이 아니라 文尾 곧 終結法에 나타나는 형태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공손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濟州島 方言<sup>5)</sup>의 공손법은 中世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三等分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른이냐 아이냐, 연령이 위냐 아래냐, 그리고 가까운 사이냐 아니냐 하는 세 가지 관점에 의한다.<sup>6)</sup>

表一.

		話者		어 른		아	이
				年 上	年 下		
聽者	어 른	年 上	하여 / 흠서	흠 서	흠	서	
		年 下					
아 이		하 라		하 라			

3) 安秉禧(1965: 65~66)에서는 ‘起源의으로는 어떠했던 共時論的인 記述에서 體言에 직접 連結된 경우에 限하여 particle이라 부르고, 그밖의 경우에는 語尾로 다룬다’ 하여 어미와 particle을 구별하고 있으나 우리는 편의상 兩者를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4) 崔明玉(1976: 150).

5) 이후로는 그냥 ‘方言’이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中世語는 李基文(1972)의 ‘後期中世國語’를 가리킨다.

다음에는 이러한 恭遜法 區分에 따른 疑問法 語尾를 살펴보고자 한다.

1. ㅎ라體 疑問法 語尾<sup>7)</sup>

1) ‘-고’系……-고, -가

(1) a. 그거 무신 음식고? (그저 무슨 음식이니?)

b. 이저 느네 책가? (이저 너희 책이니?)

(2) a. 느 무시거 먹음고? (너 무얼 먹고 있니?)

b. 는 밥 먹음과?<sup>8)</sup> (넌 밥 먹고 있니?)

여기서 ‘-고/가’는 體言이나 用言의 名詞形에 繫詞없이 직접 連結된다. 그런데 ‘-고’가 疑問詞를 同伴하여 未知의 일에 대한 說明을 要求하는 說明疑問을, 그리고 ‘-가/과’는 의문사를 갖지 않고 可否의 判定을 要求하는 判定의문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中世語 ㅎ라體 의문법 어미 ‘-가/고’와 일치한다<sup>9)</sup> 아울러 현대 중앙어와 마찬가지로 ‘-고’의 설명의문은 下降調의 억양을 나타내며 ‘-가’의 判定의문은 上昇調의 억양을 나타낸다. 그러나 方言의 ‘-가/고’는, 方言의 ‘-가’가 名詞化素 ‘ㅁ’ 뒤에서 ‘-과’라는 어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中世語의 의문법 어미 ‘-가/고’와 차이를 지닌다.<sup>10)</sup>

2) ‘-니’系……-니, -니아(냐)

- 
- 6) 洪宗林(1975 : 155~158). 도표도 그에 따른다. 여기서 ‘ㅎ서’體는 尊稱, ‘ㅎ여’體는 中稱, ‘ㅎ라’體는 平稱; 李崇寧(1957).
- 7) 洪宗林(1975)에서는 ㅎ라體 의문법 어미를 ‘-고’系, ‘-디’系, ‘-니’系의 세 系列로 분류했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에 대한 분석을 달리하여 ‘-고’系와 ‘-니’系 두 계열만을 인정한다.
- 8) 城山-大靜 이남지역은 ‘-과’, 그 이북지역은 ‘-가’로 나타난다; 洪宗林(1975 : 161).
- 9) 現代 경상도 방언에도 ‘-고/가’의 대립이 존재한다; 崔明五(1976).
- 10) 발달의 先後에서 ‘-가’보다 ‘-과’를 앞세우는 경우도 있다. 기원적으로 ‘-과’가 더 먼저이고 名詞化素 ‘ㅁ’ 뒤에서는 ‘ㅁ’의 唇音性 때문에 原形을 유지하나 體言前接의 경우에는 ‘ㅁ’가 탈락되어 ‘-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洪宗林(1975 : 160~161). 이러한 주장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中世語나 경상방언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과’보다 ‘-가’를 앞세웠다.

- (3) a. 이거 누게네 책이니? (이것은 누구네 책이니?<sup>11)</sup>  
 b. 이거 느네 책이냐? (이것 너희 책이니?)
- (4) a. 그거 누구네 책이라니? (그것은 누구네 책이더냐?)  
 b. 그거 느네 책이라냐? (그거 너희 책이더냐?)
- (5) a. 가원 무시게엔 꼴아니? (그 애는 무어라고 말하더냐?)  
 b. 그 말 가의가 꼴아냐? (그 말을 그 애가 말하더냐?)
- (6) a. 느네 아방 어디 감시니?<sup>12)</sup> (너희 아버지 는 어디 가고 있니?)  
 b. 느네 아방 집의 감시냐? (너희 아버지 집에 가고 있니?)
- (7) a. 느네 아방 어디 가시니? (너희 아버지 어디 갔니?)  
 b. 느네 아방 집의 가시냐? (너희 아버지 집에 갔니?)
- (8) a. 는 어느 학교 학생인디?<sup>13)</sup> (너는 어느 학교 학생이니?)  
 b. 는 아라 국민학교 학생인디아?<sup>14)</sup> (너는 아라 국민학교 학생이니?)
- (9) a. 는 그때 멧살이란다? (너는 그때 몇살이었니?)  
 b. 는 그때 열살이란다아? (너는 그때 열살이었니?)
- (10) a. 는 어디 갈티?<sup>15)</sup> (너는 어디 가겠니?)  
 b. 는 집의 갈티아? (너는 집에 가겠니?)

11) 中央語로 번역함에 있어서 공손법은 洪宗林(1975)를 따른다.

12) (6), (7)과 같은 예에서 의문범어미 ‘-니’는 발음 편의상 흔히 생략된다.

(6) a. →느네 아방 어디 감시?

b. →느네 아방 집의 감시아?

(7) a. →느네 아방 어디 가시?

b. →느네 아방 집의 가시아?

13) ‘학생인디?’는 ‘학생+이+ㄴ+디+이?’로 分析한다.

14) ‘-인디아?’는 때로 ‘-인다, -인다’로 발화되기도 하고 심지어 구개음 화되어 ‘-인자’로 발화되기도 한다. 이 때의 ‘-나다’는 中世語의 2人稱 의문어미 ‘-나다’와 類似한데, 판정의문의 어미인 方言의 ‘-나다’와는 달리 中世語의 ‘-나다’는 판정·설명의문에 두루 쓰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15) ‘-ㄹ’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는 어디 갔니?

여기서 ‘ㅎ’이나 ‘ㅇ’은 음운론적으로 條件된 요소이며 형태론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11) a. 는 어디 살았디? (넌 어디서 살고 있니?)  
 b. 는 서울 살았디아? (넌 서울에서 살고 있니?)  
 (12) a. 는 어디서 오란디? (넌 어디에서 왔니?)  
 b. 는 부산서 오란디아? (넌 부산에서 왔니?)

(3)-(7)과 마찬가지로 a는 下降調의 설명의문, b는 上昇調의 肯定的 문이다.

表二.

	先行形態의 構成	2人稱活用語尾	疑問法 語尾
1	體言		교/가
2	用言+(으)ㄴ		교/가
3	體言+이		니/냐
4	體言+이+라		니/냐
5	用言+아/어		니/냐
6	用言+았시/었시		니/냐
7	用言+아시/어시		니/냐
8	體言+이	-디-	ㄴ.....이/이아
9	體言+이+라	-디-	ㄴ.....이/이아
10	用言+(으)ㄴ	-디-	(ㄴ).....이/이아
11	用言+았/었(아/어+ㄴ)	-디-	(ㄴ).....이/이아
12	用言+았/었(아/어+ㄴ)	-디-	(ㄴ).....이/이아

表二에서 先行形態로 나타나는 형태소들의 문법적 기능은 本論이 이들 형태소들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玄平孝(1974), 洪宗林(1975, 1976)에 의존하여 表二의 先行形態로 나타나는 형태소들의 기능을 살펴보면 3, 4, 8, 9에 나타나는 ‘-이-’는 格사이며 4, 9의 ‘-라-’와 5의 ‘-아/어-’는 回想法 先語末語尾, 6의 ‘-았시/었시-’ 11의 ‘-았/었-’은 未完了相 形態素, 7의 ‘-아시/어시-’ 12의 ‘-았/었-’은 完了相 形態素, 10의 ‘-(으)ㄴ-’은 意圖法 先語末語尾이다.

형태소가 分布와 意味(機能)에 의하여 決定<sup>16)</sup>된다고 할 때 위의 ‘—디—’는 형태소의 資格을 충분히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디—’가 統合되지 않은 형태 ‘—니?’가 존재하며 그것이 2人稱活用이라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디—’에 2人稱 活用語尾라는 형태소의 資格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이 ‘—디—’가 현대 제주방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機能을 수행하며 이전부터 있어 온 형태소라면 中世語의 人稱活用語尾 ‘—오/우—’<sup>17)</sup>와 함께 國語에 [人稱活用]이라는 特殊한 文法範疇가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sup>18)</sup>

그런데 여기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왜 10, 11, 12에서는 ‘—디—’가 缺如된 形態가 존재하지 않는가? 왜 유독 ‘—디—’만 ‘—니’系 語尾를 分離시키고 插入되는가? 그리고 ‘—니’系 語尾를 갖는다고 한 10, 11, 12에서, ‘니’를 갖지 않고 왜 ‘이’만 단독으로 나타나는가?

이에 대한 解決의 열쇠는 起源的인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起源的으로 알타이어의 모든 活用形은 動名詞形이었으니, 動詞의 述語形으로도 動名詞形이 그대로 쓰였으며 이는 國語에도 그대로 부합되는 것<sup>19)</sup>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動名詞形 語尾 —\*n, —\*l은 현대 中央語와는 달리 모두 文章의 敘述形 語尾로도 사용<sup>20)</sup>되었다. 그리고 方言의 境遇 動名詞 語尾와 疑問法 語尾體系가 서로 밀접한 관계<sup>21)</sup>를 보여준다. 方言

16) 高永根(1978).

17) 許維(1963).

18) 그러나 方言에서 ‘—디—’는 언제나 2인칭 주어에만 호응하지만 그 역은, 즉 2인칭 주어에 언제나 ‘—디—’가 호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기서의 [人稱活用]이라는 범주의 인정은 더 신중한 고찰을 요구한다.

19) 李基文(1972: 20~21).

20) 金完鎭(1957).

21) 韓榮均(1984: 234). 이 論文에서 筆者는 우리의 ‘—니’系 어미를 다시 분석하여 ‘니’를 先行要素를 명사화하는 통사론적 기능과, 화자의 발화내용을 화자의 의지와 무관한 것임을 밝혀 간접화한다는 話用論的 기능을

의 ‘-니’系 語尾는 起源的으로 ‘動名詞形 語尾 ㄴ+이’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대 濟州方言에서 ‘-니’는 더이상 分析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ㄴ’ 자체가 아직도 動名詞的 特性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앞서 제기했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즉 ‘表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니’系 語尾는 앞에 非動名詞形 語尾를 요구하며, 10, 11, 12에서처럼 ‘-디-’가 插入된 ‘-니’系 語尾에 動名詞形 語尾 ㄹ, ㅁ, ㄴ이 先行하는 境遇, 不連續形態<sup>22)</sup> ‘ㄴ……이/이아’는 그 동명사적 성격의 충돌에 의해 不連續形態의 ‘ㄴ’을 탈락시키고 ‘-이/이아’만이 독립적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不連續形態 ‘ㄴ……이/이아’에서 ‘ㄴ’이 탈락하는 경우는 ‘-니’系 어미가 ‘-디-’의 插入으로 분리된 경우에 限한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디-’가 插入되지 않은 ‘-니/냐’는 동명사형 어미가 先行될 때 ‘ㄴ’ 탈락의 방향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先行 동명사형 어미를 교체시키는 것이다. 그리하여 未完了相 先語末語尾 ‘-얌/엄-’, 完了相 선어말어미 ‘-안/언-’ 뒤에 ‘-니/냐’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同一形態素의 이형태<sup>23)</sup>이면서 동명사형 어미를 갖지 않는 ‘-얌시/엄시-’, ‘-아시/어시-’로 선행 어미를 교체시키고 ‘-니/냐’가 결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ㄹ-’만큼은 그것이 의도법인 이상, 의문문에서는 2인칭 주어하고만 호응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2인칭 활용어미 ‘-디-’를 결여시킨 형태는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ㄴ……이/이아’의 ‘ㄴ’ 탈락 형태로만 존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까지의 결과에 의해 2인칭 활용어미 ‘-디-’는 그것이 ㄹ·ㅁ·ㄴ 뒤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명사형 어미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갖는 附加名詞化素의 형태소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견해를 달리 한다.

22) 中世語의 ‘호쇼셔’體 의문법어미를 不連續形態 ‘니……가’로 분석하기도 한다; 高永根(1981: 14).

23) 洪宗林(1976).

있는 듯하며, 그러한 성격때문에 ‘-니’系 어미를 분리시키고 挿入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8)-(12)b의 ‘-아’에 대해 살펴보면 역시 分布와 意味(기능)의 두 형태소 분석기준에 의해, 즉 ‘-아’가 統合되지 않은 의문법 어미 ‘-니’가 존재하며 ‘-아’가 판정의문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 ‘-아’에 판정의문의 형태소라는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는 前述했던 ‘-고’系 어미와도 關係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說明의문의 어미인 ‘-고’에 판정의문의 형태소 ‘-아’가 결합되어 ‘-과’를 형성하고 이것이 名詞化素 ‘口’의 後行 위치에서는 ‘口’의 唇音性 때문에 原形을 유지하나 體言前接의 경우에는 ‘고’가 脫락되어 ‘-가’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이 형태소 ‘-아’가 국어 본래의 형태소이고 方言에서처럼 ‘-과’보다 ‘-가’로 一般化되는 경향이 中央語에도 존재했던 것이라면, 中世語 이전시기에 ‘-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2. 呼여體 疑問法 語尾

### 1) ‘-엔’系……-엔, -어<sup>25)</sup>

(13) a. 이진 무시거이엔? (이것은 무엇인가?)

b. 이거 느 책이엔? (이것은 네 책인가?)

(14) a. 그거 누제네 물이라서? <sup>26)</sup>(그것은 누구네 말이던가?)

b. 그 사람 창수라서? (그 사람 창수던가?)

24) 이 때 ‘고’의 유지가 用言의 名詞形에만 한정된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진 느네 옷ㄴ슴가? (이것은 너희 옷감이니?)

25) 洪宗林(1975)에서는 이를 ‘-라’系라 하고 그 속에 ‘-라’와 ‘-서’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라’는 說明法 語尾 또는 命令法 語尾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앞에서 세웠던 의문법 어미에 대한 우리의 규정에 어긋난다. 그리고 ‘-서’는 後述하겠지만 그 분석을 달리하여 ‘-어’로 본다.

26) 洪宗林(1975: 200)에서는 ‘물+이+라+서’로 분석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물+이+랏+어’로 분석한다. 이 회상법 선어말어미 ‘-랏-’은 呼여體에서도 나타난다; 물이라수파→물+이+랏+우+과



- (15) a. 자의 어디서 옴이엔? <sup>27)</sup>(저 애는 어디서 오는가?)  
 b. 가의 낭 싱금이엔? (그 애는 나무 심는가?)
- (16) a. 는 어디 가젠? (넌 어디 가겠는가?)  
 b. 는 집의 가젠? (넌 집에 가겠는가?)
- (17) a. 는 무시저 헤염서? (넌 무얼 하고 있는가?)  
 b. 가원 밧더레 감서? (그 애는 밧으로 가고 있는가?)
- (18) a. 는 그때 어디 살아서? (넌 그때 어디서 살았는가?)  
 b. 가원 집의 가서? (그 애는 집에 갔는가?)

아래의 表三에서 알 수 있듯이 ‘-엔’ 과 ‘-어’ 는 그 分布가 다르다. 그리고 a는 의문사를 갖는 下降調의 설명의문이고, b는 의문사를 갖지 않는 上昇調의 判定疑問이다. 제주방언 의문법의 특징이, 설명의문과 判定의문의 구분이 어미의 대립으로 나타난다<sup>28)</sup>는 것인데 이 系列의 경우에는 그러한 大립이 나타나지 않는 例外的 現象을 이룬다. 또한 주어의 人稱制約도 별로 받지 않는다.

2) ‘-고’系……-고, -가

- (19) a. 이거 누계네 책인고? (이것은 누구네 책인가?)  
 b. 이거 자네 책인가? (이것은 자네 책인가?)
- (20) a. 자네 그때 몇살이란고? (자네 그때 몇살이었던가?)  
 b. 자네 그때 열살이란가? (자네 그때 열살이었던가?)
- (21) a. 오늘 자네 무시저 흥큰고? (오늘 자네는 무얼 하겠는가? <sup>29)</sup>)  
 b. 자네 바닷에 가른가? (자네 바다에 가겠는가?)
- (22) a. 자네 어디 살암신고? (자네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b. 자네 이디 살암신가? (자네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가?)
- (23) a. 자네 집의 누계 와신고? (자네 집에 누가 왔는가?)  
 b. 자네 집의 소님 와신가? (자네 집에 손님 왔는가?)

27) 옴이엔→오펜→오멘.  
 싱금이엔→싱그펜→싱그멘.

28) 洪宗林(1975: 163~164).

a는 설명의문, b는 판정의문이다. ‘-ㄴ고’系 語尾는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에 따른 語尾의 대립이 존재한다.

3) ‘-순’系…… 순

- (24) a. 저거 누계네 책이순? (저것은 누구네 책인가?)  
b. 이거 지네 책이순? (이것은 자네 책인가?)
- (25) a. 이거 누계네 물이라순? (이것은 누구네 물이던가?)  
b. 이거 지네 물이라순? (이것은 자네 물이던가?)
- (26) a. 진 무시거 흐크순? (자네는 무얼 하겠는가?)  
b. 지네 바닷에 가크순? (자네는 바다에 가겠는가?)
- (27) a. 가의 어디 감순? (그 애는 어디 가고 있는가?)  
b. 가의 집의 감순? (그 애는 집에 가고 있는가?)
- (28) a. 가의 어디 갔순? (그 애는 어디 갔는가?)  
b. 진 서울 살았순? (자네는 서울에서 살았는가?)

a는 설명의문이고 b는 판정의문이다. 兩者의 구분이 語尾의 대립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엔’系와 ‘-ㄴ고’系가 男·女 話者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순’系는 女性 話者만이 사용한다.<sup>30)</sup>한편 ‘-ㄴ고’

表三

	話者의 性別	男女共通		女
	疑問法語尾 先行形態의 構成	-격식성	-격식성	‘-순’系
		‘-엔’系	‘-ㄴ고’系	
13	體言+이	엔	ㄴ고/ㄴ가	순
14	體言+이+라(스)	어	ㄴ고/ㄴ가	순
15	用言+(으)ㄷ+이	엔	ㄴ고/ㄴ가	순
16	用言+스 크	엔	ㄴ고/ㄴ가	순
17	用言+암/엄			순
	암시/엄시(암스/엄스)	어	ㄴ고/ㄴ가	
18	用言+아시/어서(아스/어스)	어	ㄴ고/ㄴ가	순

는 ‘-엔’系보다 더 격식성을 가질 때 사용된다.

### 3. 呼서體 疑問法 語尾

이 의문법 語尾는 單一系列이어서 아주 간단하다. 또한 主語의 人稱의 制約도 없으며 語尾의 대립에 의한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sup>31)</sup>

(29) 성님 어드레 감이우파? (형님은 어디로 갑니까?)

(30) 집의 가쿠파? (집에 가겠습니까?)

(31) 자원 어드레 감수파? (저 애는 어디로 갑니까?)

(32) 철수 집의 가수파? (철수는 집에 갔습니까?)

(33) 가원 공일날에도 학교 갑테까? (그 애는 일요일에도 학교에 갑니까?)

(34) 성님은 어디 갑테까? (형님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29)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에 따라 ‘-파’ 또는 ‘-과’, ‘-까’ 또는 ‘-가’로 발화된다. 이들의 geminata 인 ‘ㄱ’의 硬音은 그 경음의 度가 육지어의 경우보다 弱하여 많은 ‘nuance’를 갖는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여러 종류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階級的으로 따져서 卑賤한 계층이나 아동 사이에는 ‘-깡’, ‘-팡’이 사용되기도 한다.<sup>32)</sup>

‘-까’는 呼서體 ‘-고’系의 ‘-가’와 마찬가지로 唇音性을 가진 相對尊待語尾 ‘-우-’ 뒤에서는 ‘-우-’의 唇音性 때문에 ‘-파’를 유지

29) ‘-엔’系 어미의 의도법에는 ‘-스-’가 연결되는데 반해 ‘-고’系, ‘-순’系 어미에는 ‘-크-’가 연결된다. 그러나 의미에는 조금도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어디 가젠? (어디 가겠는가?)

→ 집의 가쿠파 (집에 가겠습니까)

30) 洪宗林(1975: 204~206)에는 ‘-순’系는 여성화자일 경우에, 그리고 ‘-고’系는 남성화자일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고’系는 여성화자일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31) 이 呼서體 의문법 어미에 대해서는 洪宗林(1975: 209~212)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단지 거기에서는 相對尊待 선어말어미를 ‘-수-’로 보고 있으나 여기서는 ‘-우-’로 파악하는 玄平孝(1974)의 태도를 따른다; 감수파 → 가+압스+우+파

32) 李崇寧(1957: 70).

하지만 직설법 ‘-네-’, 회상법 ‘-데-’ 뒤에서는 ‘-고’를 탈락시켜 ‘-까’로 발화된다. 前述했던 판정의문의 형태소 ‘-아’를 인정한다면 以前에는 ‘-\*ㅍ’가 존재했으리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Ⅲ. 맺음말

이상에서 方言의 疑問法 語尾를 살펴보았다. 지금 여기서는 머리말에서 제시하였던 서술관점 즉 方言 자체의 공시적 기술만이 아니라 文獻語와의 상관관계 속에서의 방언기술을 염두에 두고 이제까지 진행해 온 작업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方言의 疑問法은 中世語와 마찬가지로 三分의 공손법 등급을 가지며 그에 따라 의문법 어미가 차이를 보이는데,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구분이 대개 이들 어미의 대립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여 보았다.

2) ㅎ라體 疑問法 語尾에는 ‘-고’系와 ‘-니’系가 있다. ‘-고’系의 ‘-고’, ‘-가’는 각각 中世語와 마찬가지로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을 나타내는데, 판정의문어미 ‘-과’에서 판정의문의 형태소 ‘-아’를 分析해 내고 中世語 疑問法 語尾 ‘-고’, ‘-가’ 以前 시기에 판정의문의 語尾 ‘-\*과’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니’系에서 動名詞形 語尾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疑問法의 2人稱 活用語尾 ‘-디-’를 分析해내고 中世語의 人稱活用語尾 ‘-오/우-’와 함께 국어에 [人稱活用]이라는 特殊한 文法範疇가 있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보았다. 아울러 動名詞의 特性을 갖는 疑問法 語尾의 不連續形態 ‘-니……이’를 가정하였다.

3) ㅎ여體 疑問法 語尾에는 ‘-엔’系, ‘-고’系, ‘-순’系의 三系列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고’系를 제외하고 ‘-엔’系와 ‘-순’系는 어미대립에 의한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區分을 갖지 않는데, 이는 中世語의 ㅎ야씨體 疑問法 語尾가 설명의문과 판정의문의 區分을 갖지

않고 ‘-가’의 단일형태를 갖는다는 점과 一致한다.

4) ㅎ서體 疑問法 語尾에는 ‘-과’의 單一系列만이 존재하는데 ㅎ라體와의 비교를 통해 以前 시기의 설명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ㅏ’의 존재를 추정해 볼 수 있었다.

## 참 고 문 헌

- 高永根(1978), 形態素의 分析限界, 언어학 3.  
 \_\_\_\_\_(1981), 中世國語의 時相과 叙法, 塔出版社.  
 \_\_\_\_\_(1983), 國語文法の 研究, 塔出版社.  
 金完鎭(1957), -n, -l 動名詞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國語研究 2.  
 安秉禧(1965),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 6 (建國大學校).  
 李基文(1972),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李崇寧(1957/1978), 濟州島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塔出版社.  
 李賢熙(1982), 國語의 疑問法에 대한 通時的 研究, 國語研究 52.  
 崔明玉(1976), 現代國語의 疑問法 研究, 學術院 論文集 15.  
 韓榮均(1984), 濟州方言 動名詞 語尾의 統辭機能, 國語學 13.  
 許 雄(1963), 中世國語研究, 正音社.  
 玄平孝(1974), 濟州島 方言의 定動詞 語尾 研究, 東國大 大學院.  
 洪宗林(1975), 濟州島 方言의 疑問法에 對한 考察, 論文集 8. 韓國國語教育研究會.  
 \_\_\_\_\_(1976), 濟州島 方言의 先語末語尾 ‘-ㅏ/ㅑ-’, ‘-ㅏㅑ/ㅑㅑ-’, ‘-ㅏㅑㅑ/ㅑㅑㅑ-’, ‘-ㅏㅑㅑㅑ/ㅑㅑㅑㅑ-’에 對하여, 先濟語文 7.